광주·전남 본격 유세전 돌입…각 정당 일제히 출정식

제21대 대선 선거운동 첫날

민주 "광주가 민주주의 중심 돼야"
국힘 "무너진 국정운영 균형 회복"
개혁신당, 여수산단 찾아 지지 호소
"호남 투표율, 민심 방향성 지표"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 위원장 등이 광주시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이재명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들이 광주·전남 각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투표율과 득표율 극대화를 노리는 민주당은 광주 5·18민주광장과 전남 순천 아랫장 등 상징적 장소를 무대로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정권 심판'과 '헌정 회복'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웠다.

양부남 광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헌정 파괴를 막고, 광주가 다시 민주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청래 중앙선대위 위원장은 "호남의 결집만이 정권 교체를 가능케 한다"고 힘을 실었다. 특히 현장에는 1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전남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순천 아랫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출정식은 '전남도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민과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장에서는 도민 자유발언과 '경청노트' 전달식을 통해 민주당의 핵심 기조인 '경청'의 의지를 강조했다.

전남 선대위는 특히 해남, 완도, 진도 등에서 '투표율 90%·득표율 95%'를 목표로 한 이른바 '9095 운동'을 선언하며 지역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넘어, 호남 주도의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전남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용광로처럼 하나된 선대위가 포용과 경청으로 도민과 동행하겠다"며 "전남이 앞장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을 견인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역사적 대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 화순·강진·해남·영암 등 남도 문화벨트 지역을 순회하며 이른바 '경청투어'를 마무리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도 이날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광주역 광장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대선 필승을 다짐했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무너진 국정 운영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바로세우기 위한 각오로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개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오는 17일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전야제에 앞서 이준석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여수산단을 첫 유세지로 선택해 산업 현장을 찾는 상징적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 수출과 국가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해법 제시를 위해 여수산단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밝힌 이 후보는 임금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5·18 민주광장에서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출정식을 진행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정권 재창출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정당이 지역 생계와 현안을 정책에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이번 21대 대선에서의 표심을 떠나 각 당의 향후 정치 가능성이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호남의 투표율은 그 자체로 민심의 방향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자치구 "역대 최고 투표율 92.5% 목표"

대선 투표 참여 독려 기자회견
캠페인 등 6개 실천 과제 제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개구청장, 이정선 시교육감이 12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 5개 자치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율 92.5%를 목표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에 나선다.

12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김이강·김병내·문인·박병규 5개구 청장이 합동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펼치는 기회인 동시에 국민이 투표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다"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넌 지난 160일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이 주인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투표율 92.5%를 목표로 내걸고 투표 독려를 위한 6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광주가 목표로 잡은 92.5%는 역대 가장 투표율이 많았던 13대 대선(92.4%)을 뛰어 넘겠다는 포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거소투표소 확대로 거동불편 시민 투표참여 확대△청년 투표 참여 캠페인 전개 △직장인·근로자 투표 참여 보장 △투표 참여 시민 할인 캠페인 전개 △잠깐 멈춤, 생애 첫 투표 캠페인 전개 △투표소 접근성 확보 일제 점검 등이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광주 투표율 분석 결과 80대 이상의 투표율이 64.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먼저 요양시설과 병원 등 447개소에 거소투표소 설치를 적극 안내해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층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광주 지역 18개 대학 총장·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친구랑 투표랑 1+1'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전투표 기간(29~30일)에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3단체, 노동단체, 주요 기업체 및 산업단지를 찾아 노동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적극 권유한다.

지역 기업과 함께 투표 참여 시민을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제과, 음식, 커피 등 생활밀착형 업종의 할인 이벤트를 운영하고, 오월 광주 나눔세일(49개 업체)과도 연계해 6·3 투표빵 판매도 진행된다.

생애 첫 투표를 하는 고3 학생들을 응원하고 초·중·고등학생에게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추진한다.

광주지역 투표소 일제 점검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와 자치구는 광주지역의 357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1층에 투표소 우선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는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한다. 안내요원도 충분히 배치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행정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반보 앞서 걷겠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